

朝鮮時代 士大夫들의 觀光行爲와 樣相 研究*

-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

Travel Behaviors of the Joseon Dynasty Gentry Described in Travel
Literatures of Mt. Geumgang and Mt. Jiri

陸 宰 用**

Yook, Jae-Yong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the tourism behavior and aspect of the Joseon dynasty gentry revealed in their trip accounts of Mt. Geumgang and Mt. Jiri through analyzing documentary records materials and preceding treatises as a first step for writing Korean tourism history. The gentry took a tour of Mt. Geumgang and Mt. Jiri on an open palanquin carried by Buddhist monks. During the tour, the flute is a representative instrument to spice up the interest, and composing and reciting poems are one of their pleasures. The monks enjoyed water bobsleigh at Balyeon waterfall in Mt. Geumgang, at the same time the gentry had an enjoyment of looking at the scene. Most of the gentry recorded their names on the rocks and wood block of vacationland. However, some of the gentry were against the conduct of leaving their mark because they thought it was in vain and useless.

핵심용어(Key words) : 한국관광사(Korean tourism history),
금강산 유람록(Trip account of Mt. Geumgang),
지리산 유람록(Trip account of Mt. Jiri),
남여(Open palanquin),
제명(Recording one's name to vacationland)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B00847).

** 김포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e-mail: jyyook@kimpo.ac.kr
(관심분야: 관광역사, 관광문화, 축제, 이벤트).

I. 서론

한 분과학문의 총체적인 역량과 업적이 드러나는 저서를 둘 든다면, 그 학문에 관한 ‘~史’와 ‘~論’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현상이 발생·변천하여 온 역사가 觀光史라고 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관광현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韓國觀光史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한국관광사가 없는 실정이다. 관광사뿐 아니라, 관광사 서술의 바탕이 되는 한국관광현상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논문들 또한 많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 점은 그동안 ‘觀光學概論’類가 다수 발간되어 각 대학에서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된다(육재용, 2008a).

관광학계의 이 같은 연구상황 속에서도, 관광현상의 역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 간헐적으로나마 꾸준히 발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관광학이 독립 학문으로 성립하려면 관광현상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한경수(1999: 93)는 한국관광사의 정립을 목적으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경수(2001a: 136-137)는 한국관광사 연구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를 언급하면서, 관광사는 관광현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무엇이든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으로 史書, 實錄, 文集, 使行錄, 불승의 성지순례기, 표류기록, 碑文 등을 들며, 지금까지 국문학에서 紀行文學으로 분류된 것들은 모두 관광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했다. 하지만 관광사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한경수 자신은 先人들의 遊覽을 기록한 기행문학을 대상으로 근대이전의 관광현상을 살피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¹⁾

우리나라 관광학회지 논문을 메타분석한 김사현(2007: 28-29)은 관광학 연구의 양적 접근법이 방법론상의 신뢰성·타당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의 역사적 연구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관광사 서술의 전단계가 관광현상의 역사적 접근이라면, 관련 연구에 당시 관광체험자들의 관광행위와 숨결이 생생히 묻어나야 하는데 기존의 觀光史나²⁾ 해당

1) 한경수의 연구는 주로 史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관광의 歷史的 意味 및 用例’ 파악(한경수, 2001b) 못지않게 ‘先人들의 觀光行爲와 樣相’을 시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觀光史를 표방한 저서가 몇 권 출간되기도 했다. 한국관광협회에서 발간한 『한국관광호 텔발전사』(1982), 『한국관광발전사』(1984)와 김진섭이 저술한 『고대관광사』(1999a), 『중

논문들에는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항별로 간략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관광학 전공자들이 인접학문 중에서 史書에 의거한 歷史學의 연구 성과를 많이 수용하고, 文學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육재용, 2008a: 82). 이제부터는 인접학문의 성과를 취하면서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학 전공자들이 직접 체계적인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관광사 서술의 전단계가 되는, 근대이전 우리나라 관광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문헌자료인 산수유람록에 드러난 선인들의 관광행위와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필자(2008a)는 이전에 지리산 유람록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광행위와 그 양상을 한 차례 살펴본 바 있다. 이번에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자료의 범위를 금강산 유람록으로까지 확대하여,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관광현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본 논문에서 취급할 자료는 금강산 유람록 33편과 지리산 유람록 9편이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산수유람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당시의 관광현상을 다양하게 추출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밝힌 의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더 제기할 수 있다. 곧 앞서 제시한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광현상은 어떠한가'가 유람자(客, guests)를 기준으로 접근한 문제라면, '관광지 주인으로서 조선시대 승려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가'와 '관광지 주인으로서 조선시대 지방관의 행위와 역할은 어떠한가'는 主(hosts)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³⁾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 작품 수가 많아 제한된 지면에 위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없는 관계로, 우선 첫 번째 물음만을 밝혀보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그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II. 자료선정과 연구방법

세관광사(1999b), 『관광사업사』(2000) 등이다. 하지만 『한국관광호텔발전사』와 『한국관광발전사』는 한국관광현상 전체를 시대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한 본격적인 韓國觀光史라 할 수 없으며, 김진섭의 저서들은 모두 유럽의 관광현상만을 거론한 유럽관광사이다.

3) 산수유람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 정치영(2003, 2005)과 육재용(2008a)의 논문은 주로 客(guests)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데, 본 논문 또한 서술 입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각을 달리하여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主(hosts)의 관점으로도 당시의 관광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선인들의 여가생활 속에 나타난 관광행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사는 관광현상사인 동시에 관광체험자를 중심으로 한 관광생활사이고, 관광사건의 역사일 뿐 아니라 관광행위의 역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사 연구에는 관광사건의 나열 못지않게 선인들이 누렸던 관광행위와 그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근대이전 한국의 관광현상을 고찰할 때 史書 외에 文學作品에 투영된 선인들의 관광행위를 시대별·계층별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文學에는 당대의 관광현상에 대한 자세하고도 생동감 있는 묘사가 史書보다 더 풍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육재용, 2008a: 33-34).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근대이전 선인들의 관광행위와 양상은 그들이 유람 후에 남긴 기행문학에 잘 드러난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山水를 유람하고 기록한 遊覽錄도 기행문학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들 유람록에는 유람의 동기·목적·성격을 비롯하여 동행인·여정·숙식·준비물·유흥 및 유람자의 意識 등과 관련된 정보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록은 대부분 漢文으로 기록되어 개인 문집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섭렵하기 위해 관광현상의 역사적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漢學의 능력까지 겸비하면 좋겠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인접학문 전공자들에 의해 상당수의 산수유람록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므로 오늘날 독자들은 해당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관광학 연구자들은 이 같은 2차 자료를 잘 활용하여도 당시의 관광현상을 새롭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먼저 본고에서 거론할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을 편역·해설한 도서들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에 포함된 13권의 각 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거기에 수록된 개별 유람록들의 개황을 살피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각 유람록의 출처를 아래의 표에 명시하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추후 해당 도서들을 직접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어 본 논문에서 다룰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을 유람연도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내면 <표 2>, <표 3>과 같다. 작품 수가 적은 지리산 유람록부터 먼저 제시한다. 현재까지 전하는 금강산 문학작품의 수는 200편이 넘고(조필감 저, 최강현 역주, 2001: 108), 지리산 유람록은 약 70편 정도 남아 있다(최석기 외, 2007: 385).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자료들 중 가급적 節錄하지 않고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편역자의 해설이 풍부하게 첨부된 금강산 유람록 33편, 지리산 유람록 9편을 본고의 연구대상 자료로 선정했다.

〈표 1〉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을 편역·해설한 도서

저자·편역자, 간행연도	제목, 출판사	수록 작품 특성, 비고
〈1〉이동항 저, 최강현 역주 (1995)	『지암의 해산록』, 국학자료원	
〈2〉이혜순·정하영·호승희·김경미 공저(1997)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금강산 외의 기타 명산 유람록도 수록
〈3〉정향교 역해(1998)	『율곡선생의 금강산 답사기(풍악행)』, 이화문화출판사	기행시
〈4〉이국 외 지음, 정우영 엮음(1998)	『선인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기행』, 이화	고려시대, 20세기 이후의 작품도 수록
〈5〉남효온 외 저, 김용곤 외 역(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혜안	고려시대 작품 1편 수록
〈6〉김동주 편역(1999)	『금강산 유람기』, 전통문화연구회	고려시대, 승려의 작품 수록
〈7〉이경수·강혜선·김남기 편역(2000)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 강원대학교 출판부	
〈8〉조필갑 저, 최강현 역주 (2001)	『부여의 조진사 금강산에 가다』, 신성출판사	
〈9〉김창협 외 지음, 민족문화추진회 엮음(2004)	『명산답사기』, 서울출판사	고려시대 작품 4편 수록
〈10〉조용호 옮김(2005)	『19세기 선비의 의주·금강산 기행』, 삼우반	작자 미상
〈11〉이풍의 지음, 이충구·이성민 옮김(2005)	『동유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시화집
〈12〉최석기 외 옮김(2007)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13〉심경호(2007)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名山 35곳 대상, 대부분 節錄, 고려시대 작품 2편 수록

자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을 편역·해설한 도서들을 필자가 출간연도순으로 수합·정리하여 작성.

〈표 2〉 지리산 유람록의 유람연도순 배열

작자	작품명	유람연도	유람나이	출처
①이륙(李陸, 1438~1498)	지리산기(智異山記)	1463	26	〈12〉
②김종직(金宗直, 1431~1492)	유두류록(遊頭流錄)	1472	42	〈12〉
③남효온(南孝溫, 1454~1492)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	1487	34	〈12〉
④김일손(金翹孫, 1464~1498)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	1489	26	〈12〉
⑤조식(曹植, 1501~1572)	유두류록(遊頭流錄)	1558	58	〈12〉
⑥양대박(梁大樸, 1543~1592)	두류산기행록(頭流山紀行錄)	1586	44	〈12〉
⑦박여량(朴汝樑, 1554~1611)	두류산일록(頭流山日錄)	1610	57	〈12〉
⑧유몽인(柳夢寅, 1559~1623)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1611	53	〈12〉
⑨성여신(成汝信, 1546~1632)	방장산선유일기(方丈山仙遊日記)	1616	71	〈12〉

자료: 〈표 1〉의 〈12〉번 도서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표 3〉 금강산 유람록의 유람연도순 배열

작자	작품명	유람연도	유람나이	출처
①성현(成愼, 1439~1504)	동행기(東行記)	1481	43	〈4〉
②남효온(南孝溫, 1454~1492)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1485	32	〈5〉
③이원(李蘊, ?~1504)	유금강록(遊金剛錄)	1493	?	〈5〉
④성제원(成悌元, 1506~1559)	유금강록(遊金剛錄)	1531	26	〈5〉
⑤홍인우(洪仁祐, 1515~1554)	관동일록(關東日錄)	1553	39	〈5〉
⑥이이(李珥, 1536~1584)	풍악행(楓嶽行)	1554	19	〈3〉
⑦유운룡(柳雲龍, 1539~1601)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1557	19	〈2〉
⑧양대박(梁大樸, 1543~1592)	금강산기행록(金剛山紀行錄)	1572	30	〈2〉
⑨정철(鄭澈, 1536~1593)	관동별곡(關東別曲)	1580	45	〈4〉
⑩배용길(裨龍吉, 1556~1609)	금강산기(金剛山記)	? ⁴⁾	?	〈2〉
⑪유몽인(柳夢寅, 1559~1623)	풍악기우기(楓嶽奇遇記)	1622	64	〈13〉
⑫이정구(李廷龜, 1564~1635)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1603	40	〈7〉
⑬권업(權喈, 1574~1650)	구사금강록(龜沙金剛錄)	1607	34	〈7〉
⑭이형윤(李炯潤, 1593~1645)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1615	23	〈4〉
⑮정엽(鄭擘, 1563~1625)	금강록(金剛錄)	1618	56	〈7〉
⑯이명준(李命俊, 1572~1630)	유금강일록(遊金剛日錄)	1628	57	〈7〉
⑰신익성(申翊聖, 1588~1644)	유금강내외산제기(遊金剛內外山諸記)	1631	44	〈7〉
⑱신익성(申翊聖, 1588~1644)	유금강소기(遊金剛小記)	1631	44	〈7〉
⑲이명한(李明漢, 1595~1645)	유풍악기(遊楓嶽記)	1640	46	〈7〉
⑳이경석(李景奭, 1595~1671)	풍악록(楓嶽錄)	1651	57	〈7〉
㉑홍여하(洪汝河, 1621~1678)	풍악일기(楓嶽日記)	1657	37	〈7〉
㉒김득신(金得臣, 1604~1684)	금강산록(金剛山錄)	1665	62	〈7〉
㉓김창협(金昌協, 1651~1708)	동유기(東遊記)	1671	21	〈7〉
㉔김수증(金壽增, 1624~1701)	풍악일기(楓嶽日記)	1680	57	〈7〉
㉕이동표(李東標, 1644~1700)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1690	47	〈7〉
㉖이만부(李萬敷, 1664~1732)	금강산기(金剛山記)	1723	60	〈4〉
㉗박성원(朴聖源, 1697~1768)	금강록(金剛錄)	1738	42	〈5〉
㉘이동항(李東沆, 1736~1804)	해산록(海山錄)	1791	56	〈1〉
㉙조필감(趙弼鑑, 1767~1826)	동행일기(東行日記)	1802	36	〈8〉
㉚이풍익(李豊翼, 1804~1887)	동유첩(東遊帖)	1825	22	〈11〉
㉛김금원(金錦園, 1817~1851?)	호동서략기(湖東西洛記) ⁵⁾	1830	14	〈13〉
㉜작자미상(1796~?)	금강일기(金岡日記)	1841	46	〈10〉
㉝이상수(李象秀, 1820~1882)	동행산수기(東行山水記)	1856	37	〈6〉

자료: 〈표 1〉에서 제시한 각 도서의 내용,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저자 해제 부분, 기타 해당 작품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 4)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의 한국문집총간 금역당집(琴易堂集) 저자 해제 부분을 참고하면, 배용길은 1583년과 1600년에 금강산을 각각 유람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금강산기(金剛山記)」가 어느 해에 작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5) 「호동서략기」의 저자 김금원의 신분은 분명하지가 않다. 심경호(2007: 217)는 김금원을 사대부 여성으로 보았고, 손영화(2004: 164)는 김금원의 모친이 서녀 혹은 첩이었거나 부친이 중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위의 <표 2>, <표 3>에는 작자의 漢字名, 생몰연대, 작품명의 한자표기, 유람 연도, 유람 나이, 출처 등을 참고로 병기했다. 출처 부분의 번호 표시는 <표 1>에 나타난 저자 및 도서 번호를 말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필자(2008a)는 이미 지리산 유람록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광행위와 양상을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산수유람록에서 확인 가능한 관광현상 관련 세부 항목'을 14개로 나눈 뒤, 항목별로 개별 유람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세부 항목은 ①일시, ②나이·신분, ③동기, ④성격, ⑤동행인, ⑥이동 수단, ⑦여정, ⑧숙식, ⑨경비, ⑩준비물·장비, ⑪유흥, ⑫난관, ⑬주객 관계, ⑭유람자의 인식·의식 등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Ⅲ장의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다시 요약·제시하고자 한다.

금강산 유람록과 지리산 유람록은 이미 한 차례 거론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두 名山의 유람록을 한꺼번에 다루어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몇 가지 주요 관광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새로운 연구대상인 금강산 유람록에 드러난 관광현상을 고찰한 후, 필요한 경우 거기에 지리산 유람록의 내용을 첨가하여 논의를 확대한다.

결국 본고는 금강산 유람록의 작품 수를 늘리고, 특정 관광현상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자세히 살펴 이를 지리산 유람록의 경우와 연계시켜 논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루는 작품이 많은 관계로, 지리산 유람록을 분석할 때 적용했던 14개의 세부 항목을 다 거론하지는 못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오늘날의 관광학 이론 형성에도 일조할 수 있는 몇 개의 항목만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선인들의 관광행위와 양상을 일반화하고자 한다.

Ⅲ.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광행위와 양상

먼저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영(2003)은 여가지리학·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금강산 유람록 20편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을 고찰한 바 있는데,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금강산 유람록 33편에는 정치영이 거론한 작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위의 <표 3>에서 제시한 금강산 유람록 중 정치영이 언급한 작품들의 번호를 나타내면 ②, ③, ④, ⑤, ⑦, ⑧,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㉓, ㉔, ㉖, ㉗, ㉘, ㉙, ㉚번이다. 나머지

작품들은 본고에서 새롭게 취급하는 것들이다. 물론 여기서 거론하는 각 작품들은 저마다 작자의 서술시각이 다르고 분량에도 차이가 있어, 당시의 관광현상에 관한 정보를 오늘날 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고르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정치영(2003)은 금강산 여행자들의 성격과 여행 동기, 체재기간, 여행 경로 및 주요 경유지, 여행 준비와 동반자, 여행 시기와 교통수단, 숙박지, 여행 중의 활동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위의 논의는 청량산 유람록을 대상으로 한 정치영(2005)의 또 다른 논문과 함께 당시 사대부들의 관광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접학문에서 이룩한 좋은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금강산 유람록에 드러난 여타의 관광현상에 관해서는 위의 논문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필자(2008a)는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광행위와 양상을 상세히 살폈는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을 대상으로 考究할 세부항목은 <표 4>의 ⑥, ⑪, ⑭에 해당하는 이동 수단, 유흥, 유람자의 의식 등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선행연구(정치영, 2003)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다. 먼저 이동 수단에 속하는 당시 유람지에서 성행한 藍輿 사용의 실태에 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 유람시의 遊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놀이 중 특히 금강산 발연암 부근의 폭포 아래에서 즐긴 물놀이(水戲)에 관해 고찰한다. 끝으로 유람자의 인식, 곧 遊覽意識에 해당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題名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1. 이동 수단과 남여(藍輿) 사용

성현은 승지 직위에서 파직된 뒤에 동료들과 함께 금강산 유람길에 나섰는데, 말 끄무니에 도롱이와 옷을 매달고 전형적인 나그네 차림으로 움직였다. 남효운은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했으며, 잔도(棧道, 절벽과 절벽 사이에 선반처럼 매어 놓은 다리 길)를 이용하기도 했다. 성제원도 말을 타거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오르내렸는데, 시왕백천동(十王百川洞)에서는 쇠사슬을 붙잡고 이동했다. 홍인우도 말을 타고 이동했으며, 망고봉 정상 부근을 오르내릴 때는 바위에 박아 고정시켜 놓은 쇠막대기를 잡고 움직였다. 유운룡도 말을 타고 금강산에 접근했으며, 배를 띄워 사선정에 정박하기도 했다.⁶⁾

6) 서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의 내용들의 出典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앞서 밝힌 <표 2>와 <표 3>에서 각 유람자의 성명, 작품명, 출처를 확인한 뒤, 그 출처 번호에 해당하는 편역

〈표 4〉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선인들의 관광행위와 양상

세부 항목	관광행위와 양상
① 일시	시기: 음력 3월 말~4월 말, 8월 중순~10월 중순/ 계절: 봄, 가을/ 기간: 5~17일, 관직에 있는 경우는 9일을 넘지 않음
② 나이, 신분	나이: 26~71세(나이와 유람기간과의 상관관계는 없음)/ 신분: 사대부
③ 동기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유람/ 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해/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 속세를 벗어나 隱逸의 뜻을 펴기 위해
④ 성격	사적인 여가행위/ 관직에 있으면서 임의로 유람/ 대부분 관직이나 사대부의 지위 활용/ 유람 시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음/ 재방문인 경우도 많음/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리산을 찾음
⑤ 동행인	지인의 권유와 상호 약속으로 팀을 구성/ 아전, 從者, 요리사, 집꾼, 기생, 악공, 승려 동행/ 30~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유람행렬을 이룸
⑥ 이동 수단	도보, 말, 노새, 배, 藍輿(가마)/ 승려의 등에 업혀/ 허리에 끈을 묶고 승려에게 끌려/ 하루 평균 20~50리의 산길을 이동
⑦ 여정(旅程)	대부분 인근 지역(근거리)에서 접근하여 산에 오름/ 仙遊를 회구하거나 은둔의 뜻이 있는 자 외에는 모두 천왕봉에 오름
⑧ 숙식	지리산 밖의 往路·歸路에서는 민가·縣倉·驛館·관사에서 숙식/ 산중에서는 절·암자·사당·읍막에서 숙식/ 가을 산에서 다래·배·홍시를 먹음
⑨ 경비	자비가 기본/ 돈이나 식량을 얼마간씩 추렴하였을 것으로 추정/ 숙식을 제공한 곳에 쌀을 남기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유람 도중 현지 선비·백성·지인·승려·수령들로부터 쌀·술·음식·노자 등을 제공 받음
⑩ 준비물, 장비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壽親書』를 보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 짚신, 미투리, 행전(行纏), 대지팡이, 도롱이, 샷갓/ 옷, 솜옷, 갓옷/ 피리, 시집, 문방사우/ 이불, 베개, 방석/ 쌀가루
⑪ 유희(遊興)	종이나 악공들의 악기(생황, 피리, 태평소, 비파, 북) 연주/ 기녀의 창/ 음주가무/ 詩作
⑫ 난관(難關)	구토, 설사, 감기/ 양식과 말 먹이가 모자람/ 갈증/ 추위
⑬ 주객(主客) 관계	主(hosts): 백성, 승려/ 客(guests): 사대부/ 승려의 역할: 유람 안내, 문화자원 해설, 숙식 제공, 藍輿를 맨/ guests는 관직이나 사대부의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활용/ 승려는 세금과 부역을 감해 받기 위해 사대부에게 편의를 제공/ 대규모의 유람행렬은 현지 백성과 승려들에게 접대의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침/ 관직에 있는 자는 유람을 하면서 현지 백성들의 이목에 신경을 씀
⑭ 유람자의 인식, 의식	‘登泰山而小天下’ 意識/ 隱逸意識/ 儒者의 본분을 강조한 仙遊/ 유교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불교와 무속의 허탄함 비판/ 愛民意識/ 지리산을 관광의 대상뿐 아니라 생활과 은거의 공간으로 인식/ 臥遊意識/ 自我省察과 心性修養 의식/ 명승지에 題名 행위 비판

자료: 육재용(2008a: 59)의 분석결과를 재수록.

양대박 일행은 금강산까지는 말과 가마를 타고 접근했고, 금강산 내에서는 말, 가마, 도보로 이동했다. 장안사에서 숙식을 해결한 후 양대박의 부친은 藍輿(의자

서를 <표 1>에서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성현(成俔)의 경우는 <표 3>의 ①에 출처가 <4>로 나오므로, <표 1>의 <4>에 해당하는 ‘이곡 외 지음, 정우영 엮음(1998). 『선인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기행』, 인화.’에 실린 「동행기(東行記)」란 작품을 참고하면 된다. 세부 대목마다 일일이 引用 페이지 번호를 붙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워지므로, 여기서는 따옴표로 인용 표시한 부분만 출처를 명시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原文까지 출전을 밝혀 제시한다.

와 비슷하고 위를 덮지 않은 작은 가마)를 타고 명담으로 떠나고, 양대박은 지팡이를 끌고 뒤따랐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의 경우 1572년에 유람을 한 양대박의 기행문에서부터 藍輿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정철은 말과 배를 타고 움직였으며,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가서 산영루에 올라가니'란⁷⁾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여를 이용하기도 했다. 양대박과 정철의 글에는 남여를 탔다는 표현만 있을 뿐 이에 관한 자세한 부연 설명(남여를 타는 상황, 느낌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정구는 말과 가마를 이용하여 금강산에 접근하였고, 금강산 내에서는 藍輿를 타고 이동하다가 길이 험하면 내려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권업의 「구사금강록」에는 남여와 말을 이용한 호화 유람객들의 폐해로 말미암아 사찰에 중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권업 자신이 남여를 타고 유람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형운은 배를 타고 가서 충석정을 감상하다가 뱃멀미를 했고, 험준한 곳을 오를 때는 쇠사슬을 잡고 이동했다. 또한 이형운은 마하연(摩訶衍)을 소개할 때, 이 절은 내·외산 속에 있어 한량들에게 시달리느라 가마꾼 중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한다고 했다. 이처럼 「유금강산기」에는 이형운 자신이 남여를 직접 탔다는 기록은 없으나, 남여를 메는 승려들의 고충을 언급하고 있다.

정엽은 금강산 내에서 대부분의 유람을 藍輿를 타고 했는데, 가마꾼으로는 유점사나 장안사의 승려들이 동원되었다. 길이 험하면 지팡이를 짚고 걸기도 하고, 비가 올 때는 남여에서 내려 도롱이를 입고 걸어가거나, 때로는 마차를 탔다. 정엽은 藍輿를 타는 과정에서, 유람지의 객(guests)의 입장에서 그곳의 주(hosts)가 되는 남여꾼들의 고충에 관해 측은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⁸⁾ 정엽은 만폭동의 바위 위에 새겨진 양사언(1517~1584)의 글씨 '蓬萊楓嶽 元化洞天'을 바라본 뒤, 금강산에서 남여를 타고 다닌 것은 실로 양사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 사대부들

7) 이 대목의 「관동별곡」 원문은 다음과 같다. “山山中등을 미양 보라 東동海히로 가자스라 藍輿輿緩완步보호야 山山映영樓누의 올라호니”

8) “중 수십 명이 나와서 맞이했는데 모두 푸른 눈에 야윈 얼굴로 속세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제부터는 말이 갈 수 없으므로 옷과 양식을 나누어 아랫사람들에게 지고 가게 했다. 나군과 이군 그리고 원이와 함께 각자 가마를 타고 갔다.……가마를 멘 중은 땀이 비오듯 하니 필경 내가 비대해서 고생하는 모양으로 내가 편하려고 남을 힘들게 하니 실로 내 마음이 편편치 않았다.”(이경수 외, 2000: 79-80) “가마에 앉아서도 피곤하고 힘든 것을 견딜 수 없으니 하물며 가마를 메는 사람들이야!”(上同: 86)

“釋子數十輩來迎 皆碧眼癯容異俗狀 此後馬不得前 分衣糧令下輩擔去 與羅李及援 各乘藍輿而行……肩輿僧汗如雨 必苦我肥大 自逸而勞人 實余心之所不寧者……坐肩輿猶不堪勞德 況肩輿者乎”(鄭曄, 『金剛錄』, 『守夢先生集』 卷之三,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의 남여 사용 유래를 설명했다.

이명준은 수레, 배, 말을 타고 금강산으로 접근했고, 고성 태수 허계(許啓) 등이 남여를 타고 발연사로 와서 합류했는데, 이명준 자신이 남여를 탔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신익성은 내산과 외산의 분기점인 수재(水岫)에서 외산의 중들이 가지고 온 남여로 갈아타면서 이제껏 남여를 운반했던 내산의 중들 수십 명에게 그들이 칭한 詩를 지어주었다. 이경석은 남여와 말을 타고 이동했는데, ‘고성 사람들과 상운역(祥雲驛) 사람들이 와서 내수재(內水岫)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이경수 외, 2000: 199)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당시 승려뿐 아니라 상민들도 사대부들의 남여를 메는 남여꾼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수재는 내산과 외산의 경계로 남여꾼들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홍여하는 從者를 대동하고 病中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장안사에서 표훈사로 가는 길에 남여를 탔다. 김득신도 동행인들과 함께 유점사 승려들이 메는 남여를 타고 가다가, 내수재에서 갈아탔다. 당시 명문가의 자제로서 혈기 왕성한 21세의 젊은이였던 김창협도 남여를 타고 이동했다. 김수증도 남여를 탔는데, 잔교(棧橋)를 놓은 길은 위험해 남여에서 내려 걸었다. 이동표는 남여를 타고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세의 먼지를 벗어난 생각이 들게 한다고 표현했다. 박성원도 남여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사대부들은 유람 시 남여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험하거나 미끄러우면 남여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움직였다.

이동항은 ‘금성군수 정동보가 안부를 묻고, 단발령 남여꾼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단단히 당부해 놓았다’(이동항 저, 최강현 역주, 1995: 26)라고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근 수령의 도움으로 藍輿를 탔다. 이동항은 처음에는 승려가 아닌 금강산 근처 백성들이 메는 남여를 타고 단발령을 올랐고, 단발령 정상에서 동서의 남여꾼들이 교대하였다. 이처럼 18세기 후반에 오면 금강산을 찾는 사대부 유람자들의 수가 늘고, 또한 남여를 타고 유람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금강산 주변 백성들 까지도 이들의 이동을 위해 남여꾼으로 동원되었음이 확인된다. 실로 관광지 인근 백성들인 主(hosts)의 고충을 헤아릴 만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⁹⁾

9) 당시 사대부들의 남여를 운반해야 하는 금강산 인근 백성들의 실상을 묘사한 다음과 같은 구절도 주목할 만하다. “들으니, 원님의 전령(傳令)이 이미 어제 도착하였으므로 동임(洞任)을 시켜서 남여꾼들을 내도록 재촉하여 마을 사람과 산 위에서 화전(火田)을 해먹고 사는 백성들까지도 모두 와 있다고 하였다. 나라에서 남여꾼들의 폐단을 마음 아파하여 단발령 동쪽과 서쪽에 사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부세(賦稅)를 면제하여 주고, 관가에서도 또한 농사짓기를 방해하지 아니하니, 남여를 메고 오르내리는 일이 비록 농사철의 바쁜 때라고 하여도 그 괴로움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동항 저, 최강현 역주, 1995: 28).

“聞主倅傳令昨日已到 故使洞任催發輿軍 居民之上山耕火者皆至矣 朝家軫念輿軍之弊 一嶺東西

조필감은 신계사 뒤편에서 남여를 타고 올랐다. 남여를 운반하는 승려들의 상황을 ‘남여를 멘 중들이 매 1백 보(약 200m)마다 한 차례씩 가마를 바꾸어 매는데, 남여를 멘 중들이 숨이 차서 마치 씹씩거리는 소들처럼 힘들어하면서 땀을 흘리었다’(조필감 저, 최강현 역주, 2001: 49)라고 생생히 묘사했다. 22세의 젊은이였던 이풍익도 남여를 탔는데, 이처럼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남여를 이용하는 것은 당시 사대부의 신분적 상징처럼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士大夫家 혹은 中人 이상의 여성으로 알려진 김금원은 14세의 나이에 남자의 의상으로 갈아입고, 동자처럼 편발(編髮)을 하고 교자(轎子) 안에 앉아 여행길을 떠났다. 「금강일기」의 작자는 남여를 타기는 했지만, 신계사로 가는 길목에서 남여꾼들이 농사철이라 갈 수 없다고 하여 10리를 걸어서 절에 도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後代로 올수록 권세와 배경이 있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금강산 유람 시에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거의가 藍輿를 이용하였고, 일부는 남여꾼들의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藍輿는 擔輿 혹은 肩輿라고도 하는데, 사대부들의 남여 이용은 지리산 유람록에도 일부 드러난다. 곧 17세기 이후에 지리산을 유람한 박여량, 유몽인, 성여신의 경우이다. 박여량은 승려들이 남여 두 대를 구해놓아 일행과 함께 탔고, 유몽인도 말이 끄는 수레에서 남여로 바꾸어 타고 백장사로 들어갔다. 성여신 일행은 쌍계사에서 佛日菴 쪽으로 남여를 타고 갔는데, 남여 4대를 젊은 승려 10명이 번갈아 가며 땀(육재용, 2008a: 51). 승려들이 사대부의 남여를 메는 것은 그들의 도움으로 세금과 부역을 감해 받기 위해서였다고 한다(심경호, 2007: 760).

以上으로 금강산·지리산 유람 시의 이동 수단과 藍輿 사용 여부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지리산 유람록을 대상으로 분석·정리한 앞의 <표 4> ‘이동 수단’ 항목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藍輿는 유람객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기구(vehicle)의 일종이다. 이러한 운송기구는 처음에는 인간의 힘을 이용하였으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牛馬車와 같은 가축의 힘을 활용하였고,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 철도, 해운, 항공 같은 기계적인 운송수단이 개발되었다(이항구·고석면·이황, 2001: 29).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名山 유람 시에 애용한 藍輿는 인간의 힘을 이용한 운송기구이다.

참고로 근래에 발간된 ‘관광교통론’ 관련 저서들(이경모·김창수, 2008; 김기홍, 2004)을 살펴보면, 조상들이 이용하였던 藍輿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곧 우리나라 근대이전 관광교통수단의 변천 양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자세히 고찰

民戶除其身役 官亦不侵烟役 擔輿上下是其當役故 雖撥耕奔走 無怨苦之語(上同: 267).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국내외의 교통수단 발전사를 거론하는 데 있어 자동차, 철도, 해운, 항공의 항목만을 설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항구 외(2001)도 '교통의 발달과 관광'을 다룬 장에서 원시교통, 고대교통, 중세교통, 근세교통, 현대교통, 미래교통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나, 藍輿에 관한 소개는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근대이전의 관광교통수단을 거론할 때, 현대 관광교통수단의 전단계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名山을 유람할 때 탔던 藍輿의 이용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2. 遊興과 鉢淵에서의 물놀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시에 경험하는 遊興은 詩를 지어 읊조리거나, 악기 연주를 들으며 흥을 돋우고, 음주가무를 하는 경우 등이다. 금강산 유람록에 나타난 유흥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효온은 유람 중 四仙亭 기둥에 四言詩 四章을 적고, 음식을 먹으며 시를 지어 노래했다. 이원(李蘊)도 승려들에게 시를 지어 주거나, 여정 곳곳마다 시를 지어 읊었다. 또한 이원은 마하연사에서 승려들과 함께 禪과 일상사에 관해 문답하면서 知的 유희를 즐겼는데, 승려들을 곤경에 처하게도 했다. 성제원, 홍인우, 유운룡도 유람 중 詩를 지어 읊었다. 이처럼 詩作과 吟詩는 유람 도중에 행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중요한 소일거리(유희)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대박은 유람 중 胡琴과 鐵笛 소리를 들으며 운치를 느꼈으며, 정철은 술을 마시고 醉仙 흥내를 냈다. 이정구는 피리 부는 樂工을 데리고 다니면서 때때로 피리를 불게 하여 興을 돋우었다. 권업은 '무학대에 올라 피리를 불고 술을 마시며 오랫동안 소요(逍遙)하였다'(이경수 외, 2000: 38)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피리 연주와 술을 통해 유람 중 운치를 느꼈다. 이형운은 정양사에서 詩僧 응상(應祥)과 함께 琴工으로 하여금 가야금을 타게 하고 술을 마시며 詩를 지었는데, 달이 떠오르자 신선이 노니는 것 같은 흥취를 느꼈다.

신익성은 유람 중 시를 짓거나 종에게 피리를 불게 했으며, 경포대 아래에서 작은 배에 기생, 악대를 싣고 호수 중간으로 가 술을 마시며 즐겼다. 이경석도 유람지 곳곳에서 시를 지어 읊었고, 승려와 시로써 화답하기도 했다. 김창협은 회양읍 관아에 머물 때 회양 부사가 樂工에게 피리를 불도록 하여 한 곡조를 들었다. 이동항은 표훈사에서 밤이 깊도록 달빛 아래를 거닐다가, 능파루에 올라 詩를 지었다. 「금강일기」의 작자는 금강산 내의 명승지마다 시문을 통해 감회를 피력하였고, 이

상수는 유람을 하면서 나름의 상상력을 구사하며 스스로 즐겼다.

지리산 유람록에도 유람자들이 유흥을 즐기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식, 양대박, 박여량 등은 기생과 악공까지 대동했다. 악공과 광대가 생황과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유람행렬에 앞장서고 기생들이 그 뒤를 따랐다. 악공들은 절에 도착한 후에도 연주를 계속하여 승려가 뜰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박여량은 천왕봉 천왕당에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고, 승려와 종들에게 춤을 추게 했다. 음주가무 외에 사대부들은 서로 詩를 주고받으면서 유람을 즐겼다(육재용, 2008a: 54). 이처럼 당시 사대부들의 유람 중 興을 돋우는 대표적인 악기는 피리였고, 詩作과 吟詩가 그들의 중요한 소일거리이자 여흥 수단인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발연암(鉢淵庵) 부근 폭포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는 遊戯는 남효온의 「유금강산기」에 처음으로 드러난다.¹⁰⁾ 남효온은 동행하는 승려 운산에게 먼저 물놀이를 하게 한 뒤, 자기도 그것을 따라하면서 함께 즐기고 있다. 사대부의 체통을 고집하지 않고, 유람지 현지에서 직접 水戲를 체험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이른바 ‘워터 보슬레이’(water bobsleigh)라고도 하는 물미끄럼틀의 원조격인데, 산행의 단조로움을 깨는 유희로 주목할 만하다(심경호, 2007: 153). 이원(李龜)과 성제원은 발연에 도착하여 승려들의 물놀이를 구경하고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 자신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다. 홍인우도 승려들과 함께 폭포를 감상하러 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승려를 시켜 물놀이를 하도록 했으나, 자신은 구경만 하고 실제 하지는 않았다.

이이(李珣)는 장편 紀行詩에서 승려와 유람객들이 발연폭포에서 노는 장면을

10) 이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암자(鉢淵庵) 위 조금 떨어진 곳에 폭포가 걸렸는데 물이 떨어지는 길이가 수십 장이었다. 좌우는 모두 흰 돌이었는데 매끄럽기가 옥을 간 것 같아서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었다. 행랑을 풀고 물을 떠서 입 안을 헹구고 꿀물을 마셨다. 발연의 고사에, ‘놀이를 하는 중들이 폭포 위에서 빨나무를 깔고 앉아 물 위로 뛰어들어 물을 타고 내려왔다. 잘하는 자는 제대로 내려갔고 못하는 자는 거꾸로 내려갔다. 거꾸로 내려가면 머리와 눈이 물에 잠겨 한참 뒤에야 다시 나올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 돌은 미끄러워 비록 몸이 거꾸로 내려가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난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운산에게 먼저 시도하게 하고 이어 나도 따랐다. 운산은 여덟 번 뛰어들어 여덟 번 모두 잘 내려왔는데 나는 여덟 번 뛰어들어 여섯 번 제대로 하였다. 바위 위로 나오니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 이에 책을 베개 삼고 돌 위에 누워 조금 잠을 잤다”(남효온 외, 1998: 45-46).

“庵上少許 有瀑布橫垂數十丈 左右皆白石 滑如磨玉可坐可臥 余解裝掬水漱口飲蜜水 鉢淵故事 釋子遊戯者乃於瀑布上 折薪而坐其上 放於水上順流而下 巧者順下拙者倒下 倒下則頭目沒水久乃還出 傍人莫不酸笑 然其石滑澤 雖倒下體不損傷 故人不厭爲戯 余令雲山先試之繼而從之 雲山八發而八中 余八發而六中 及出巖上拍手大笑 乃枕書臥石成小睡”(南孝溫, 『遊金剛山記』, 『秋江先生文集』 卷之五, 고전번역서, 한국고전번역원).

註를 달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형윤은 발연폭포를 찾아가 발연의 고사를 소개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날씨가 추워서 물에 들어가 놀지 못했다고 했다. 이명준도 발연사에 도착하여 하인들에게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 신익성은 「유금강내외산제기」에서 鉢淵을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고 간략히 소개하였고, 「유금강소기」에서는 외산의 경관을 언급하면서 ‘발연사의 물놀이(水戲)와 흔들바위(動石)의 고적은 절경이라 할 만하다’(이경수 외, 2000: 157)라고 했다.

이동표는 발연사의 승려들이 벌거벗고 폭포를 타는 동작을 보고, 사람을 가지고 장난거리를 삼는 것을 싫어하여 그만두게 했다. 여기에는 이동표의 놀이관의 일단이 잘 드러난다. 같은 사대부라 하더라도 발연의 水戲를 보면서 마냥 즐긴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박성원은 발연폭포에 이르러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이른바 중의 채주부리기를 구경하고는 모두 실컷 웃었다. 곧 어린 동자승 둘이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을 감상하고, 술을 한 잔씩 마신 후 발연사로 들어갔다. 한편 이동항은 발연사에 이르렀더니 발연의 못둑이 터져서 길이 없어졌다고 했다. 또한 이동항은 절이 폐사가 되어 물놀이마저 사라졌다고 하여 18세기 후반부터는 발연폭포에서의 水戲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과연 以後 금강산 유람록에서는 발연에서의 물놀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당시 금강산 발연암 부근의 폭포 아래에서 즐긴 물놀이는 현지 승려들과 금강산 유람자들만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特異한 유희였다고 할 수 있다. 폭포 아래에서 물을 타고 굴러내려도 몸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자연적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발연에서의 물놀이는 지리산이나 백두산 등 타 명산에서는 불가능한 유희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을 가지고 구경거리 삼는 것을 싫어한 이동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람자들이 발연에서의 水戲를 자세히 언급하거나, 실제 행하고 있다. 이 물놀이는 공간적으로 금강산에서만 한정된 특수한 유희였지만, 18세기 중반 이후까지 발연암을 찾은 대부분의 유람자들이 즐겨 보고 행한 일반화된 놀이었다.

3. 유람지에서의 題名과 題名觀

題名은 ‘명승지에 자기 이름을 기록함’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유람지의 나무·돌·바위 등에 이름을 쓰거나 새기는 것 모두를 제명행위로 보고 논의를 한다.¹¹⁾ 이름 외에 당시의 감흥을 반영한 글귀·시구를 함께 적을 수도 있다. 그냥

붓으로만 써놓는 것과 그것을 파서 새기는 경우 모두 보존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유람지에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금강산 유람록에 나타난 先人들의 제명행위와 제명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되, 제명에 무비판적인 경우부터 유람연도순으로 먼저 서술한다.

남효운은 보덕굴 앞에 있는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보덕대 옆 僧舍에 들어가 친구인 김시습의 벽기(壁記)와 신지정의 단청 그림을 보고 손수 答詩를 썼다. 성제원도 백천동 옛 암자터 돌 위에 이름을 썼다. 홍인우는 보덕굴 부근의 말라 죽은 커다란 해송 한 그루에 일행과 함께 絶句를 썼다. 또한 홍인우는 비로봉에 올라 호연한 기운이 생겨 길게 詩를 읊은 후 이를 바위 틈에 쓰고, 삼일포 바위에도 글씨를 썼다. 이처럼 당시 사대부들은 굳이 이름을 새기지는 않더라도, 나무나 돌에 詩句를 즐겨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정구와 권엽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람자들은 만폭동 입구의 너럭바위에 楊士彦이 써서 새긴 '蓬萊楓巖 元化洞天'이란 여덟 글자를 언급하고 있다. 양사언(1517~1584)은 호가 '蓬萊'로 회양 부사로 있을 때 금강산에 자주 와서 많은 글씨를 남겼다. 권엽은 만폭동을 구경한 뒤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비로봉에 올라서도 題名을 했는데, 제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하였다.

정엽은 금강대 옆에서 절구를 읊고, 바위 사이에 이름을 새긴 뒤 그 획을 붉은 색으로 칠했다. 또한 유람 중 양사언이 새긴 '蓬萊島'라는 글자를 보고는 '어찌 이 노인은 글씨를 남기지 않은 곳이 없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俗氣가 없는 遠大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가?'(이경수 외, 2000: 102)라고 했다. 양사언이 행한 題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환경파괴나 자연훼손과 같은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나 정엽 자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제명을 하고는 글자를 붉은 색으로 칠한 것이다.

이명준은 안문재를 지나 10여리 떨어진 곳에 자신의姓과 고성 군수 허계(許啓)의姓을 따 '李許臺'라고 새겼다. 이 '이허대'는 훗날 여러 문인들의 詩와 유람록에 자주 등장한다. 이 외에도 이명준의 「遊金剛日錄」에는 제명행위가 많이 드러나는데, 먼저 사선정의 북쪽 바위와 구정봉에 올라 이름을 써서 종자에게 새기게 했고, 비로봉과 만폭동 바위를 비롯한 여러 곳에 제명을 했다. 또한 이명준은 安養菴

11) 각주 14)번 原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혹 이름을 새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刻名'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대부들은 대부분 명승지에 이름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쓰거나 새기는 것 구분 없이 '題名'이란 말로 通用하고 있다.

의 벽 위에 작고한 형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애도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 그 오른쪽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이처럼 당시는 유람 중 題名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사대부들의 유람에는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從者나 石工이 동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익성은 만폭동 바위 위에 을시 1수를 적었고, 김득신은 남여를 타고 미륵대 옆에 가서 題名했다. 김창협은 표훈사 南樓와 혈성루 벽에 자신의 伯父와 증조부의 이름이 써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회에 젖기도 했으며, 금강대 바위 위에 많이 새겨놓은 先人들의 題名을 이끼를 떨어내며 읽었다. 이어 김창협은 만경대 바위와 삼일포의 서쪽 벼랑 아래에 題名을 했다. 이동표는 청학대 바위 위에 새겨진 선인들의 題名을 바라보고, 양봉래의 글씨체에 찬탄을 했다.

이만부는 만폭동의 바위에 ‘蓬萊楓嶽 元化洞天’이란 양사언의 글씨를 비롯하여, 주위에 있는 여러 돌의 앞, 뒤, 위, 아래 할 것 없이 곳곳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아직 새기지는 않은 채 글씨만 써놓은 것들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이만부는 이어 자신의 증조부와 선친의 이름도 그 동쪽 편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아래에 일행의 이름을 쓰고자 했으나 틈이 없어 끝내 쓰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옆에 있는 바위에 3명의 이름을 새겼다. 여기서 우리는 18세기 초엽 금강산 유명 장소 곳곳에 행해진 유람자들의 題名 현황과, 이미 주위의 모든 바위가 先人들의 이름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자신들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끝내 제명을 하고자 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題名觀을 엿볼 수 있다.



박성원 역시 '금강문 이후부터 고금의 시나 글씨 등이 적혀 있어 완전한 바위가 거의 없는데, 蓬萊가 쓴 곳에 이르면 더욱 빼곡히 써어 있어 후에 오는 자들이 다시 계속 쓸 자리가 없다'(남효은 외 저, 김용곤 외 역, 1998: 278)라고 하여, 당시 유람객들이 금강산 유명 바위에 글을 쓰거나 題名한 현황을 말해주고 있다. '蓬萊楓嶽 元化洞天'이란 앞의 사진에서¹²⁾ 우리는 양사언의 글씨 주변에 後人들의 이름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는 실상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박성원은 이러한 점들을 문제시하거나 비판하기는커녕 자신도 일행과 함께 금강문, 비로봉, 옥류동 석실, 사선정 바위 등에 이름을 적거나 새겼다.

조필감은 금강산으로 향하는 도중 武陵溪와 죽서루 아래 바위에 이름을 새겼고, 만폭동 시냇가 바위에도 제명을 했다. 이풍익도 만폭동 바위에 이름을 새겼다. 「금강일기」의 작자는 금강산 내 몇 곳에 懸板과 題名을 했는데, 옥류동을 지나 10리를 돌아오니 藍輿를 뺀 승려들과 글씨를 조각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당시 금강산 유람에는 사대부들의 이동을 위한 남녀승들뿐 아니라 그들의 이름과 글씨를 새기기 위한 刻手들도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사대부들은 유람 시 주요 명승지에 저마다 목판이나 바위에 글씨를 새겨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이동항은 「풍악총론(楓嶽總論)」에서 경치가 뛰어나 유명한 곳에 題名하는 것은 금강산에서부터 못된 풍속이 되어 이 산이 가장 심하게 되었다(名區題名 自是弊俗 而此山爲最)고 하며¹³⁾,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의 중들은 돌을 새기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題名하는 것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이동항도 九淵 壁과 옥류동 바위에 제명을 하여, 말과 실제 행동에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당시 금강산에서의 제명은 유람자 대부분이 행하는 보편화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이경석과 이상수는 자신들도 제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 유람자들이 금강산 바위 곳곳에 제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경석은 외룡담과 구담 사이의 바위 위에 유람 온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을 보고, 양사언이 바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한 폐단을 거론하며 '나는 제명하지 않는 것

12) 만폭동의 너럭바위에 새겨진 '蓬萊楓嶽 元化洞天' 사진이 수록된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blog.daum.net/nyj2006/12559796>,
<http://blog.daum.net/nyj2006/12559854>.

13) 이동항의 「海山錄」은 『遲庵先生文集』 卷之四 '雜著' 속에 실려 있다. 「해산록」이 끝난 바로 다음에 권말 부록 형식으로 「楓嶽總論」이라는 글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동항의 題名觀이 잘 드러난다(이동항 저, 최강현 역주, 1995: 131, 170).

으로서 제명을 삼고 이름을 새기지 않는 것으로서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승려들에게 회롱삼아 말하고 있다.¹⁴⁾ 이처럼 이경석은 당시 사대부들이 무분별하게 유람지에 제명하는 것을 과격적으로 나무라고 있다. 17세기 중반 조선시대 사대부의 의식 속에 이러한 題名觀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수는 금강산에서 행해진 제명의 弊害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古人의 경우를 들었다. 옛날 사람은 깊은 뜻이 없이 우연히 흥취로 인하여 더러 어떤 일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후세 사람은 그것을 마냥 본받고 있다고 나무랐다. 일례로 韓愈는 嵩山에서, 蘇軾은 仙遊에서 題名을 하였지만, 이들은 지나는 산천마다 모두 제명을 남긴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금강산의 제명은 장안사의 동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명경대에서 성황을 이루고 만폭동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주먹만 한 돌도 온전한 것이 적었다'라고¹⁵⁾ 하면서, 사대부들의 유람지에서의 題名行爲를 비판하고 있다(김동주 편역, 1999: 368-369).¹⁶⁾ 이상수는 이름난 어진 사람 곧 名賢이 되는 것은 인간세계의 수양에 의함이지, 山水에 제명을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김채식, 2001: 84).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중엽까지 금강산에서 분별없이 題名이 이루어진 결과 나타난 황폐화된 자연환경의 실상을 잘 알 수가 있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당시에 도 山水를 통해 名聲을 얻으려는 행위를 비판하고, 자연보호론적 사고를 지닌 선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경석과 이상수의 題名觀은 요즈음 관광지의 환경을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

14) 이 대목을 더 보충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중들에게 회롱삼아 말하였다. 사람들이 이 산에 유람을 와서 유력자들이 다투어 도끼를 가지고 바위에 새기면 기암괴석이 필경에는 거의 완전한 형체가 없을 것이니 사람 인형을 처음 만든 자(始作者)는 양봉래인가? 나는 제명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명을 삼고 이름을 새기지 않는 것으로서 이름을 새길 터이니 여러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경수 외, 2000: 191). "余戲謂僧輩曰 人之遊此山 而有力者爭持斤鑿而刻石 則奇巖怪石畢竟殆無完形 備此者其楊蓬萊乎 余以不題名爲題名 不刻名爲刻名 諸上人以爲何如"(李景奭, 『楓嶽錄』, 『白軒先生集』 卷之十,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15) 김채식(2001)이 제시한 原文의 일부와 대조해 보면 김동주(1999)가 편역한 「동행산수기」는 完譯이 아니라 縮譯임을 알 수 있는데, 원문에는 위의 대목 다음에 '이름난 어진 사람(名賢)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이어진다. "金剛題名 自長安寺洞門始 盛于明鏡臺 極于萬瀑洞 蓋拳石鮮有間者……名賢則未嘗有焉"(김채식, 2001: 83, 각주 249번에서 재인용).

16) 계속하여 이상수는 원평도(袁宏道, 1598~610)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며, 유람지에서의 題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올법 가운데 산을 도둑질하고 돌을 떼내면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속된 선비가 산을 오염시키는데 올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푸른 산과 흰 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까닭 없이 그 얼굴에 자자(刺字)를 하고 그 살을 찢는가. 아, 인자하지 못함이여!"(김동주 편역, 1999: 369).

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제명을 옹호하기보다 제명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題名觀이다. 이경석이나 이상수 외에, 지리산을 유람한 조식과 성여신도 題名을 비판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조식은 일행들과 함께 狹巖을 오르면서 바위에 先人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본 뒤, 대장부의 이름은 史官이 책에 기록해 두고 넓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하는데 구차하게도 원숭이와 너구리가 사는 숲 속 덩불의 돌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썩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최석기 외, 2007: 112) 題名行爲의 허망함을 나무라고 있다.¹⁷⁾ 훗날 성여신 또한 유람 도중 이곳을 보고는, '유람할 때 썩지 않는 돌에 이름을 새겨 영구히 전하고자 한 것이다. 南冥 선생이 유산록에서 이미 기술했으니 내 어찌 다시 말하겠는가'(최석기 외, 2007: 222-223)라고 하며 명승지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람자들은 題名 또한 유람 중 餘興의 하나라고 여겨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하였다. 그렇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제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소유한 자들도 있었다. 이동항(1736~1804)은 비록 자신은 제명을 했지만 제명행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조식(1501~1572), 성여신(1546~1632), 이경석(1595~1671), 이상수(1820~1882)는 제명행위를 비판적·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처럼 유람 중 제명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그 부당함과 허망함을 강조한 선조들이 16세기 이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觀光學을 연구하는 견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곧 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배우고 보호하고자 하는 현대의 이른바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논의하는 데 있어 先人들의 題名觀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제Ⅲ장에서 고찰한 주요 내용들을 종합하여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이 외에도 필자가 더 究明하고 싶은 산수유람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遊覽意識으로는 臥遊觀光에¹⁸⁾ 관한 臥遊意識과, 유람의 興보다는 安全을 더

17) 또한 조식은 「遊頭流錄」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題名에 비판적인 견해를 거듭 피력하였다. “산 속을 둘러볼 때 바위에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많았는데, 세 군자(한유한, 정여창, 조지서)의 이름은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반드시 만고에 전해질 것이니, 어찌 바위에 이름을 새겨 만고에 전하려는 것과 같겠는가?”(최석기 외, 2007: 122) “且看山中 題名於石者多 三君子不曾入石 而將必名流萬古 曷若以萬古爲石乎”(최석기 외, 2007: 280).

18) 臥遊觀光의 개념과 현대적 의미 등에 관해서는 육재용(2008b)의 논문을 참조할 것.

중시하는 安全重視意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도 위의 경우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한 고찰을 요하나,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 5〉 금강산 유람록에 나타난 주요 관광현상

작자	작품명	유람 연도	藍輿 사용	발연 水戲	題名 합	題名 비판	비고
①성현	동행기	1481					
②남효온	유금강산기	1485		○	○		水戲를 직접 경험
③이원	유금강록	1493		○			
④성제원	유금강록	1531		○	○		
⑤홍인우	관동일록	1553		○	○		
⑥이이	풍악행	1554		○			
⑦유운룡	유금강산록	1557					
⑧양대박	금강산기행록	1572	○				
⑨정철	관동별곡	1580	○				
⑩배용길	금강산기	?					
⑪유몽인	풍악기우기	1622					
⑫이정구	유금강산기	1603	○				
⑬권엽	구사금강록	1607	△		○		藍輿를 언급만 함
⑭이형운	유금강산기	1615	△	○			藍輿를 언급만 함
⑮정엽	금강록	1618	○		○		
⑯이명준	유금강일록	1628	△	○	○		藍輿를 언급만 함
⑰신익성	유금강내외산제기	1631		○			
⑱신익성	유금강소기	1631	○	○	○		
⑲이명환	유풍악기	1640					
⑳이경석	풍악록	1651				○	
㉑홍여하	풍악일기	1657	○				
㉒김득신	금강산록	1665	○		○		
㉓김창협	동유기	1671	○		○		
㉔김수중	풍악일기	1680	○				
㉕이동표	유금강산록	1690	○	▽			水戲를 그만두게 함
㉖이만부	금강산기	1723			○		
㉗박성원	금강록	1738	○	○	○		
㉘이동항	해산록	1791	○	×	○	○	水戲가 없어진 것 확인
㉙조필감	동행일기	1802	○		○		
㉚이풍익	동유첩	1825	○		○		
㉛김금원	호동서략기	1830	○				
㉜작자미상	금강일기	1841	○		○		
㉝이상수	동행산수기	1856				○	

자료: 본론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지리산 유람록에서 藍輿 사용: 박여량(1610), 유몽인(1611), 성여신(1616)

*지리산 유람록에서 題名 비판: 조식(1558), 성여신(1616)

IV. 결론 및 시사

以上에서 금강산·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광행위와 양상을 이동 수단, 유흥, 유람의식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¹⁹⁾ 본론에서 밝힌 사항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藍輿는 先인들이 유람지에서 사용한 운송기구(vehicle)의 일종이다. 권세와 배경이 있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後代로 오면서부터 금강산 유람 시에 거의가 藍輿를 이용하였는데, 일부는 남여꾼들의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근대이전의 관광교통수단을 거론할 때, 현대 관광교통수단의 전단계로 藍輿의 이용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대부들의 유람 중 輿을 돌우는 대표적인 악기는 피리였고, 詩作과 吟詩가 그들의 주요한 소일거리이자 여흥 수단의 하나였다. 鉢淵庵 부근 폭포 아래에서의 물놀이는 오늘날 이른바 '워터 봅슬레이(water bobsleigh)'라고도 하는 물미끄럼틀의 원조격인데, 이 水戲는 공간적으로 금강산에서만 한정된 특수한 유희였지만, 18세기 중반 이후까지 발연암을 찾은 대부분의 유람자들이 즐겨 보고 행한 일반화된 놀이였다.

유람자들의 題名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본바, 유람 중 제명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그 부당함과 허망함을 강조한 선조들이 16세기 이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은 현대 관광의 관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곧 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배우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른바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논의하는 데 있어 先인들의 題名觀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관광사 서술의 전단계가 되는, 근대이전 우리나라 관광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시도되었다. 본고의 논의 결과는 時代의 범위와 現象의 폭을 두 軸으로 하는 한국관광현상의 座標上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관광행위와 그 양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점을 찍은 데 불과하다. 앞으로 본격적인 관광사 서술을 위해서는 관심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동참하여 더 많은 점들을 위의 좌표상에 다양하게 찍어 놓아야 할 것이다.

관광학은 현재학인 동시에 과거학이고 미래학이다. 관광현상에 대한 역사적 연

19) 기타 각 유람록에 드러난 당시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이나 관광현상에 대해서는 정치영(2003)과 육재용(2008a)의 선행연구를 참고할 것.

구 또한 오늘날 관광학 연구의 한 영역으로 뚜렷이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대이전 先人들의 관광행위를 밝히는 작업을 과거학으로만 간주하여 소홀이 취급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관광사 관련 연구는 그동안 학계에서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논자들이 참여하지도 않아 한 주제에 대한 반복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이돈재·최수진, 2008: 70)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觀光史와는 달리 '관광학개론'류는 그 질적인 평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미 많은 종류의 책이 발간되었으며, 최근에도 새로운 관광학총론을 편찬하기 위한 논의가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변우희·조광익·김기태·한상현, 2008).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韓國觀光史 서술을 위해 학계와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한국관광사 서술의 밑바탕이 되는 관광역사·관광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접학문의 연구자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²⁰⁾ 이제 관광에 관한 연구는 관광학계나 관광학 전공자들만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김사현의 지적처럼(2008: 30), 관광학계가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인접학문의 관광에 대한 연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환영하면서도 관광학을 향한 도전의 물결이 인접학문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학 스스로 '영향을 주고받는 학문'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라도(장병권, 2008: 91), 관광학계에서는 善意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응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기홍(2004). 『관광교통서비스』. 서울: 대왕사.
- 김동주 편역(1999). 『금강산 유람기』.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김사현(2007). 관광학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상황과 도전: 관광학회지 논문의 메타분석. 『관광학연구』, 31(1), 13-32.
- _____ (2008). 관광학의 새로운 正體性을 찾아서: 회고와 과제. 『관광학연구』, 32(4), 11-33.
- 김진섭(1999a). 『고대관광사』. 서울: 대왕사.

20) 2007년 12월 한국역사민속학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옛 사람들의 관광과 여행의 문화사'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실천민속학회에서는 '우리시대의 관광자원으로서 민속의 가치와 왜곡의 문제'를 주제로 제22회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를 2009년 2월에 개최하였다. 위의 논의들은 대부분 역사학이나 민속학과 같은 인문학적 시각에서 관광현상, 관광역사, 관광문화 등을 고찰하고 있는데, 질적 연구의 풍성한 성과를 보여준다.

- _____ (1999b). 『중세관광사』. 서울: 대왕사.
- _____ (2000). 『관광사업사』. 서울: 대왕사.
- 김창협 외 지음, 민족문화추진회 엮음(2004). 『명산답사기』. 서울: 솔출판사.
- 김채식(2001). 岵堂 李象秀의 山水論과 〈東行山水記〉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효온 외 저, 김용곤 외 역(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서울: 해안. 南孝溫. 〈遊金剛山記〉, 『秋江先生文集』 卷之五. 고전번역서, 한국고전번역원.
- 변우희 · 조광익 · 김기태 · 한상현(2008). 관광학 연구동향 및 교육과정 분석과 觀光學總論의 구성체계. 『관광학연구』, 32(4), 35-53.
- 손애화(2004). 조선조 여성 퇴기의 새로운 모색-金錦園의 〈湖東西洛記〉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39, 164-186.
- 심경호(2007).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서울: 이가서.
- 육재용(2008a). 朝鮮時代 士大夫들의 餘暇文化에 나타난 觀光現象 研究-‘遊覽’과 ‘臥遊’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문화관광정책개발 · e비즈니스전공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8b). 先人들의 여가문화에 나타난 관광현상 일고찰: 臥遊觀光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2(6), 59-81.
- 이경모 · 김창수(2008). 『관광교통론』. 서울: 대왕사.
- 李景奭. 〈楓嶽錄〉, 『白軒先生集』 卷之十.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 이경수 · 강혜선 · 김남기 편역(2000).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 춘천: 강원대 출판부.
- 이국 외 지음, 정우영 엮음(1998). 『선인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기행』. 경기: 인화.
- 이돈재 · 최수진(2008). 東 · 西洋 學問의 관점에서 본 ‘觀光學’ 論議: 學問으로의 정립과 『관광학연구』誌의 역할. 『관광학연구』, 32(4), 55-74.
- 이동항 저, 최강현 역주(1995). 『지암의 해산록』. 서울: 국학자료원.
- 이종묵 편역(2002). 『누워서 노니는 산수 -조선시대 산수유기 걸작선』. 서울: 태학사.
- 이풍익 지음, 이충구 · 이성민 옮김(2005). 『동유첩』.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향구 · 고석면 · 이황(2001). 『관광교통론』. 서울: 기문사.
- 이혜순 · 정하영 · 호승희 · 김경미 공저(1997).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 장병권(2008). 관광학과 인접학문간의 관계: 學問的 獨立과 融合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32(4), 75-93.
- 鄭曄. 〈金剛錄〉, 『守夢先生集』 卷之三.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 정치영(2003). ‘금강산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15(3), 17-34.
- _____ (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

11(1), 54-70.

- 정향교 역해(1998). 『율곡선생의 금강산 답사기(풍악행)』.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 조용호 율김(2005). 『19세기 선비의 의주·금강산 기행』. 서울: 삼우반.
- 조필감 저, 최강현 역주(2001). 『부여의 조진사 금강산에 가다』. 서울: 신성출판사.
- 최강현 역음(1996).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최석기 외 율김(2007).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서울: 돌베개.
- 한경수(1999). 삼국시대의 여행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여행연구 제9 : 삼국시대-. 『관광 연구』, 14, 93-123.
- _____(2001a). 韓國觀光史 研究의 現況과 接近方法. 『관광학연구』, 24(3), 127-146.
- _____(2001b). 韓國에 있어서 觀光의 歷史的 意味 및 用例. 『관광학연구』, 25(3), 267-283.
- 한국관광협회(1982). 「한국관광호텔발전사」. 서울: 한국관광협회.
- 한국관광협회(1984). 「한국관광발전사」. 서울: 한국관광협회.
- <http://blog.daum.net/nyj2006/12559796>
- <http://blog.daum.net/nyj2006/12559854>

2009년 9월 4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09년 10월 23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09년 11월 14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